

PS, SM 영향 185만원으로 하락

8월 비해 5만-7만원 떨어져 ... HIPS는 9월 200만-230만원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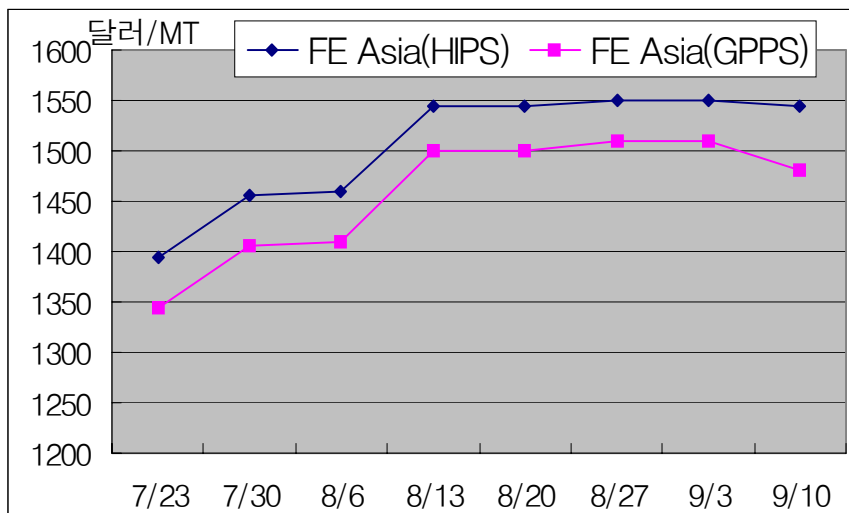
8월 톤당 200만원까지 치달던 GPPS(General Purpose Polystyrene) 가격이 9월에는 5만-7만원 하락해 185만-190만원에 거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PS 생산기업 관계자는 “8월 중순 이후 SM(Styrene Monomer) 국제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내수가격은 여전히 1400달러 안팎을 유지하고 있어 GPPS를 비롯한 PS 가격도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시적이지만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고 환율하락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톤당 2만-3만 내외에 이르는 소폭의 가격하락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주로 전기·전자용으로 사용되는 HIPS(High-Impact Polystyrene) 가격은 Natural 그레이드를 기준으로 8월 톤당 200만-205원에, Color 그레이드는 220만-230만원에 거래됐다.

PS 가격추이



한편, GPPS의 국제가격은 9월10일 CFR FE Asia 톤당 1470-1490달러, HIPS는 1540-1550달러를 기록해 9월 첫주에 비해 각각 20-30달러 하락했다. <심주영 기자>

<화학저널 2004/09/22>